

농업전망 2018(추산)

출처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◎ 2018년 농업생산액은 전년비 0.8% 증가한 48조 9,680억원 전망. 재배업 생산액이 4.0% 증가하나, 축잡업 생산액은 3.7% 감소

○ 축잡업 생산액은 산란계, 오리, 육계의 AI 여파 회복에 따른 생산증가 및 가격하락으로 3.7% 감소한 19조 5,130억 원 전망

- 한육우 가격이 회복되는 가운데,

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요가 일부 회복되어 3.3% 증가한 4조 9,010억 원

- 돼지 가격이 다시 2016년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생산액 전년비 6.6% 감소한 6조 8,740억 원 전망

- 닭, 오리 시에 의한 사육마릿수 회복되면서 생산량 전

년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, 가격 하락폭이 이를 상회하여 생산액은 전년비 각각 6.9%, 2.1% 감소한 1조 9,010억 원, 1조 310억 원 전망

▶농업부문 생산액 전망

구분	2016	2017	2018	2022	2027	단위: 십억 원, 경상 연평균 변화율(%)		
						17/16	18/17	27/평년
농업 총생산액	47,596	48,588	48,968	50,064	52,556	2.1	0.8	0.7
재배업 (곡물류 등)	28,298	28,331	29,456	29,355	29,448	0.1	4.0	-0.2
축잡업 ¹⁾	19,299	20,257	19,513	20,709	23,108	5.0	-3.7	2.1
한육우	5,057	4,745	4,901	5,530	6,170	-6.2	3.3	3.2
돼지	6,757	7,358	6,874	7,084	7,780	8.9	-6.6	1.7
닭	1,999	2,042	1,901	2,086	2,384	2.1	-6.9	1.6
계란	1,707	2,329	2,063	2,021	2,303	36.4	-11.4	2.1
젓소	2,175	2,054	2,062	2,019	2,035	-5.5	0.4	-0.7
오리	912	1,053	1,031	1,225	1,602	15.5	-2.1	5.2

주1) 농림수산물주요통계 2012 책자부터 축산업에 양잠업을 합친 축잡업 발표
2) 평년은 2013~2017년 평균값

◎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밀도 조정으로 가격상승 전망

○ 2018년 산란계 사육마릿수 112만 마리 감축 시(1.5% 감소), 계란가격 5.2% 상승

- 사육밀도 조정(0.05m² → 0.075m²) 의무화, 2018년 신규허가농가, 2025년 기존 농가 의무화

◎ FTA 영향 및 원화강세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, 수출여건 악화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전망(전년비 5.2% 악화된 197.9억 달러)

○ (FTA이행) 기체결 FTA 15건의 수입자유화율(관세철폐율)은 2018년 35.7%로 FTA 이행 완료시점의 개방화 수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, 이행 연차가 지남에 따라 개방화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수입증가 예상

- 2018년 축산물(56.6%), 가공식품(46.3%), 곡물(41.9%), 채소(36.2%), 가공과일(26.9%), 신선과일(17.6%)

- ◎ 2018년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비 9.0% 증가한 186.2백만 마리,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2.0% 증가하여 2027년 211.5백만 마리 수준 전망
- (우제류) 우제류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2.2% 증가한 14.0백만 마리 전망. 소 사육마릿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가격 상승으로 전년비 1.3% 증가하나, 젖소 1.0% 감소, 돼지 전년비 2.5% 증가
- (가금류) 산란계·오리 사육마릿수 회복되어, 사육마릿수 전년비 9.6% 증가한 172.2백만 마리 전망
- 2016년 말부터 이어진 AI 여파 회복으로 2018년 가금류 사육마릿수 전년비 9.6% 증가 전망
- 중장기적으로는 육류 및 계란 소비 증가로 젖소를 제외한 모든 가축 사육마릿수 증가 전망

▷가축 사육마릿수 추이 및 전망

단위: 백만 마릿수, %

구분	2016	2017	2018	2022	2027	연평균 변화율(%)		
						17/16	18/17	27/평년
총사육마릿수	180.6	170.8	186.2	203.4	211.5	-5.4	9.0	2.0
우제류	13.5	13.7	14.0	14.3	14.8	1.2	2.2	1.0
소	2.72	2.7	2.8	2.9	2.9	1.0	1.3	0.6
젖소	0.4	0.4	0.4	0.4	0.4	-0.9	-1.0	-1.2
돼지	10.4	10.6	10.8	11.1	11.5	1.3	2.5	1.2
가금류	167.0	157.1	172.2	189.1	196.6	-5.9	9.6	2.1
육계	88.0	88.0	90.5	100.9	104.6	0.1	2.8	2.1
오리	9.3	6.8	8.5	10.1	12.0	-26.9	25.0	3.0
산란계	69.8	62.3	73.2	78.1	80.0	-10.7	17.5	2.0

주) 평년은 2013~2017년 평균값

- ◎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, 농업생산액 증가 정체로 식량자급률 하락세 지속
- 육류 자급률 국내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증가로 연평균 0.8%p 하락(2017년 67.1%)
- 육류자급률 생산량 증가 및 수입량 감소로 전년비 1.5%p 상승한 68.6% 전망

- ◎ 2018년 한우가격 높게 유지되며, 돼지가격은 사육두수 증가로 전년 비 9.4% 하락 전망, 산란계는 농장 동물복지형으로 전환 시 수급 개선 될 듯
- 2018년 한육우 사육마릿수, 송아지 생산 늘고 도축이 줄어 전년비 1.3% 증가한 303만 마리 예상 - 도축 줄어 2018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3만 4천 톤으로 전년비 1.9% 감소하지만, 쇠고기 수입량은 3.8% 증가한 35만 7천 톤으로 전망. 2018년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비 5.2% 상승한 1만 7,579원/kg 전망
- 2018년 돼지 사육마릿수는 후보돈 입식이 늘어 전년비 2.5% 증가한 1,080만 마리로 전망 -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축 마릿수 전년비 4.8% 증가한 1,751만 마리 예상. 2018년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비 9.4% 하락한 kg당 4,481원 전망
- 병아리 입식 증가로 2018년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전년비 1.7% 증가한 7,324만 마리 전망 - 사육 마릿수 증가로 계란 생산량은 전년비 14.9% 증가한 66만 3천 톤 예상. 2018년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비 26.3% 하락한 1,249원/특란 10개 전망
-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영향으로 가축사육 마리 수 감소 전망